

처음부터 끝까지 '국뽕' 으로 일관

영화 '인천상륙작전'

영화 '인천상륙작전'(감독 이재한)을 '국뽕'(애국심+미약, 무조건적인 애국주의를 비하하는 용어) 영화, 혹은 '반공' 영화라고 비판하는 건 정확하지만 생산적인 인본은 아니다. 이 영화는 태생이 그러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대표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겪은 참상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강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새삼스러울 건 없다. 기획 초기부터 확정된 제목이었던 '인천상륙작전' 자체가 이미 영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이제 관객은 웬만한 '뽕'에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뽕에 대한 한국 관객의 내성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인천상륙작전'의 애국주의 마케팅은 영화에 의한 실득은 배제한 채, 말 그대로 관객의 애국심에만 기대다.

영화 속 애국 코드라는 게 통하려면 최소한의 감정 이입 시간이 필요하고 그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애국과 구국으로 돌진한다. '인천상륙작전'을 러닝타임 내내 심드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편리한 때문이다. 영화로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는 유치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노력 없이 '호국 영웅'에 몰입한 '인천상륙작전'의 연출 태도는 무성하다 못해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 총사령관 맥

아더(리엄 니슨)는 국군의 불리한 형세를 뒤집기 위해 이른바 크로마이트 작전(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한다. 5000대의 확률이라는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천 앞바다의 기뢰 매설 위치를 알아야 한다. 맥아더는 기뢰배치도를 빼내기 위해 해군정보부대원들을 투입한다. 이 'X-RAY' 작전에 자원한 해군 대위 장학수(이정재)는 부대원들을 이끌고 북한 인천 사령부에 잠입해 기뢰배치도 확보에 뛰어들다.

'인천상륙작전'의 이야기 열개는 나쁘지 않다.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알지만, 이 위험천만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첩보작전을 수행한 이들의 이야기는 대개 알지 못한다. '인천상륙작전'에도 기회는 있었다. 익히 아는 역사적 사실 뒤에 감춰졌던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흥미로움과 함께, 단순 '애국 영화'를 뛰어넘어 첩보영화로써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라이언 7일간의 침묵'을 잇는 '첩보'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재한은 브라이언 싱어가 아니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첩보전은 최소한의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영화의 결론인 '애국'에 다다르기 위해 방향 없이 떠돈다.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장학수의 두 번째 작전 또한 어설픈 변장을 통한 잠입과 도주라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장학수가 일종의 탐보로 변하는 마지막 전투 시퀀스는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겠다. 또 진세연·추성훈이 연기한 인물들처럼 오직 구역을 맞추기 위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는 당황스러움마저 느껴진다.

이러한 서사에 난 구멍을 채우기 위해 동원되는 건 건 배우들의 결의에 찬 표정



과 과장된 대사들이다. 장학수를 연기한 이정재는 시종일관 굳은 의지를 담은 표정으로 "우리는 모두 살아서 돌아간다" 같은 대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한다. 반대로 립계진을 연기한 이병수는 연기 내내 눈을 부릅 뜬 채 "이놈은 피보다 진하다" 같은 말로 반공 의식을 드높이려 한다. 이렇듯 '인천상륙작전'은 이야기가 아닌 이미지로 승부를 본다.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를 세련되게 풀어낸 가장 최근의 사례가 영화 '함살'이라면, '인천상륙작전'은 같은 주제를 가장 관습적으로 풀어낸 예로 거론될 만하다. 영화는 립계제가 아닌 부분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장학수와 립계진을 비롯해 맥아더까지,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가 술한 영화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모습 그대로다. 창의적인 액션 장면은 물론 없거니와 관객의 눈물을 뽑아내야 할 장면에서조차도 이미 다른 전쟁영화 등에

서 반복한 설정을 또 반복해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게 한다. 몇몇 장면은 심지어 이재한 감독의 전작인 '포화 속으로'와도 겹친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정재와 이병수는 최선을 다해 연기하지만, 아들이 이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연기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건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연기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연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비판은 전방위적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애국 코드' 마케팅,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올 것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뽕'도 제대로 못 만드는 비아냥에 시달릴 것이며, 각각의 에피소드가 얼마나 성긴 연출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이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지역 유소년 축구 교실 방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전북지역의 축구 꿈나무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힘을 실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한교원과 임종은, 장윤호 박정호네 선수는 전북구단이 운영하는 '그린 스쿨' 송천권역 유소년 축구 교실 아이들을 찾아가 축구 클리닉과 사인회 등을 실시하며 스킨십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평소 경기장에서만 보던 선수들과 가까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웠다.

또한 한교원은 전북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외계층 지원 축구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FC 아트드림'의 아이들도 찾아 이들의 축구 멘토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김민근 기자



우석대 사격부, 전국대회 메달 5개 획득 선전

우석대학교 사격부가 '제4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해 5개의 메달을 손에 넣으며 선전했다.

우석대 사격부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일실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이번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 2개와 단체전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재원 선수는 남대부 10M 공기소총 개인전 본선에서 624.2점을 쏘아 대외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김성민 우석대 사격부 감독은 "앞으로 있을 대회에 대비해 선수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기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프로야구, 4년 만에 또다시 승부조작 덮에

사상 첫 800만 관중 동원의 단꿈을 꾸고 있는 프로야구가 4년 만에 또다시 승부조작 악령에 휩싸였다.

NC 다이노스 이태양(23)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뒤 KIA 타이거즈 유창식(24)은 승부조작 사실을 구단에 자진신고했다. 계약금을 7억원이나 받았던 유창식이 고작 300만원을 받고 2경기나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복무 중인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 문우람(24)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대법합의로 충격을 더했다. 3명이 적발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 입단 후 2군 생활을 거쳐 이제 막 빛을 보

기 시작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학연 지연을 이용해 접근해오는 브로커들에게 흘러 승부조작의 덮에 자연스럽게 걸려들었다.

그동안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난 승부조작 사건을 보면 브로커들은 함께 운동했던 동료 선수를 찾거나 그들을 통해 알게 된 관계다. 브로커들은 선수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술과 향음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뒤 친분을 쌓으면 검은 뒷거래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끌어냈다.

선수들은 브로커들을 소위 '이성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한 채 미수에 걸려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때

는 이미 늦었다.

불법스포츠투자는 보통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다. 선수들이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승부조작에 실패하거나 제안을 거절하면 '이성 형님'은 '무서운 형님'으로 돌변한다. 이태양도 검찰 조사에서 승부조작에 실패한 뒤 브로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는 젊은 선수들은 승부조작의 대가로 쥐게 될 목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

역대의 연봉을 받는 선수일지라도 공 몇 개로 단번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거액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아직 도덕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어린 선수일수록 타깃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결코 드러나지 않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미 프로야구 곳곳에는 브로커들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 한다. 유혹을 뿌리치더라도 지인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이들이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프로야구는 2012년 당시 LG 트윈스 소속이었던 박현준과 김성현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KBO와 각 구단이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선수 개개인 승부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상 완전히 뿌리 뽑기는 불가능하다.

/김민근기자

진안군청 역도팀 김광훈 전국대회 금메달 3관왕

진안군은 28일 군 소속 역도팀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2016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전국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팀의 맹형 김광훈 선수(34)는 77kg급에 출전해 인상(150kg), 용상(190kg), 합계(340kg)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3관왕에 오르며 지난 해 은메달 3개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광훈 선수는 출전 선수 중 최고령 나이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진안군청에 입단 후 철저한 자기관리 및 피나는 훈련과 함께 홍삼의 고장 진안군청에서 생산되는 진안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며 체력을 관리해 최근 각종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휩쓸면서 경기기량 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면에서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진안=우태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